

036/200

#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 1. 서양사상 ⇨ 동양사상에 영향
- 2. 정보군집에 대한 처리. 주제. 구조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C 서양의 과학지식 E 조선 영향. 사상변화 Q 의학 부분은 X	2017, 2018 이후 평가원 기출의 흐름 - 인류의 사상 흐름
2 아담 살 ⇨ 이익의 사상 C 기독교 전파 목적의 전래 ⇨ E 로마시대 의학 전래 아담 살 VS 이익 사상	서양 => 동양 서양의학의 동양전래 그리고 비교 대조 구조 정보처리
3 Q 의학 부분은 X A 1~6 (정보군집) 최한기 사상 흐름	1단락 도입. 서양 의학의 전래
4 최한기 사상 + 흡손 사상 C 기계론 근원 ⇨ E 신기개념 최 C 신기 ⇨ E 신체운동원인 흡 C 창조주 ⇨ E 운동원인	2단락 아담 살 VS 이익
5 최한기 사상 VS 흡손 VS 이익 신기 VS 창조주 VS 심	3단락 조선에 서양 의학 전래의 특징
6 최한기 사상. 신기 정보군집. 정보 터집	4단락 최한기 흡손 사상
7 의의	5단락 최 흡 이 비교대조
	6단락 최한기 사상 특징

### 결국, 비교대조의 구조로 정보처리 + 정보군집에 대한 정보처리

17세기 초부터 ①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②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서학이 조선에 전래되면서 변화가 있는데

하지만

역접되며, 정보가치 높아집니다!

그러면 왜 의학은 다르냐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하는데  
특이하게

2단락 건너고

3단락에서도 초반부 정보군집으로 나옵니다.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1.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2.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3.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4.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5. 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6.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크게 6가지

다시 2단락으로 흐름 봅니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살이 쓴 주제군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③제시하였다.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④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살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C 기계론. 기독교 전파 목적

E 근대 의학이 아닌 로마시대 생리설. 중세 해부 지식 전래  
물론 이익에 영향

하지만 이익 나름의 수용

그래서 이익 VS 아담 살 비교 차이 있음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손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 3단락 내용 다시 정리하면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1.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2.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3.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4.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5.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6.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 이렇게 6개의 정보군집 이후

#### **그러던** 중

### 최한기의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흠손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흠손은 창조주와 같은 실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 역시 최한기 생각 흠손생각의 비교,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①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흠손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 최한기, 흠손의 비교 계속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최한기 이론의 특징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②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의의정리로 끝냅니다.

### 이 정보를 총 정리하면,

	이익	아담살	최한기	홉슨	데카르트
운동	뇌	뇌	뇌or신기	뇌	
지각	심	뇌	심X 신기	뇌	정신(뇌)
근원		신의 뜻	신기	신의 뜻	

16.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 전개방식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양의 의학 => 조선에서의 수용 + 변화 비교 대조

2번 선지가 가장 정확. 정답!

- ①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인체관 분화는 아닙니다. 발전.

- ②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정답

- ③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문제점 지적 없쥬

- ④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충돌은 맞는데 그렇다고 변증법 절충은 아닙니다.

- ⑤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방적 수용 변형이지 주고 받진 않아요.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세부내용이라 필요시 발췌독.

전체 내용을 표로 정리. 표 바탕 판단 ㄱ

	이익	아담살	최한기	홉슨	데카르트
운동	뇌	뇌	뇌or신기	뇌	
지각	심	뇌	심X 신기	뇌	정신(뇌)
근원		신의 뜻	신기	신의 뜻	

- ② 아담 살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이익 - 심장 맞습니다.

- ③ 이익과 홉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운동은 뇌. 둘 다 맞습니다.

- ④ 아담 살과 홉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정답!

- ⑤ 주제군징과 전체신문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양 의학이 전래된 목적.

C 기독교 선교 목적

E 당시 주류가 아니라, 로마에 관련된 것들 등!

따라서 당시 유력한 이론 소개가 아니쥬!

3단락 초반부 정보군집으로 처리합니다.

18.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단락 초반부 정보군집으로 처리합니다.

1.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2.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3.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  
을 뿐 아니라,
4.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5.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  
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6.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6번

②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 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3번

③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2번 같은데? 아니쥬? 정답!

④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5번

⑤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4번

이어지는 문제는 6단락 정보군집입니다...만 역시 주제. 구조.

19.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밑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  
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ㄴ.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ㄷ.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ㄹ.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  
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이익	아담살	최한기	흠손	데카르트
운동	뇌	뇌	뇌or신기	뇌	
지각	심	뇌	심X 신기	뇌	정신(뇌)
근원		신의 뜻	신기	신의 뜻	

최한기는 신기

이익은 심

따라서? ㄱㄹ 심장이 나온 내용 발췌독 또는

ㄱ.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  
기에서 나온다.

ㄷ.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  
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심장이 나오지 않고 신기만 나온 ㄴㄷ발췌독 접근하시면 되겠죠?  
정답. ㄴ.ㄷ 3번!

ㄴ.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ㄷ.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  
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문제를 위한 흐름

동서양 사상사 비교

공통점	동양 사상	vs	서양 사상
원리	이 (종교.성리학)		형이상학 (종교)
현상	기 (실학)		자연과학
	이기론		
차이점	이기 더불어 존재		원리-현상 분리

20.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동서양 사상사 비교 바탕 보시면,  
아마 서양은 구분됨 vs 동양은 더불어 존재.  
물론 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글의 중심이 되는 흐름은 아니니까요!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바로 정답!

최한기 - 신기

주제만 제대로 잡아도 이렇게 정답이 특튀합니다!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이익	아담살	최한기	흠슨	데카르트
운동	뇌	뇌	뇌or신기	뇌	
지각	심	뇌	심X 신기	뇌	정신(뇌)
근원		신의 뜻	신기	신의 뜻	

여기까지 철학지문 다시 보면서

동양사상

서양사상의 흐름과

서양 과학이 동양사상에 영향을 준 흐름까지 잡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2019 수능 우주론 지문을 보시면

흐름이 제대로 잡히실거예요!

이런 평가원의 거시적 설계를 바탕으로

미시적 지문 설계까지 보여야만

평가원의 의도대로 수능 시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우리 인생도 제대로 갑니다.

이어지는 것은 이제, 또 하나의 큰 흐름.

경제학 지문입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체군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주체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A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흠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

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흠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글의 전개방식, 학자 견해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흠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6.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 ④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살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제+전개방식

이익 VS 아담샬 비교대조 =>표

정보군집 독립문항 18번 4-6개 정보

세부내용 필요시 발체독 (구조비교, 대조)

순서 과정

'심' 정보군집 필요시 발체독

의의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한기는 흠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세부 필요시 발췌독**
- ② 아담<sup>A</sup>살과 달리 <sup>이</sup>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주제**
- ③ <sup>이</sup>익과 흠슨은 신체의 동작을 <sup>뇌</sup>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주제**
- ④ 아담 살과 흠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구조 C → E 1 단락 주제세팅**
- ⑤ 주제군징과 전채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조 C → E**

정보군집 독립문항 발췌독

18.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6**
- ②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 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3**
- ③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 ④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 ⑤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VS 이익**

<보 기>

㉠ **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 ① 가, 나 **필요시 발췌독(2번째 단락)**
- ② 가, 다 **주제: 심VS신**
- ③ **나, 다**
- ④ 나, 르
- ⑤ 다, 르

20.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기 이**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주제: 동서양 철학 핵심**
-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처리 가능 정보 집중**
-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태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군.
-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들어오기
- ② ㉡:드러내었다
- ③ ㉢:퍼뜨리기
- ④ ㉣:실린
- ⑤ ㉠:가리지